

News

은행권 '대출빚장' 새해에는 풀린다... '고소득자' 빼고

머니투데이

지난 연말 신용대출 문을 걸어 잠갔던 은행들이 새해 초 대출 재개
대출한도 늘리고 우대금리도 다시 확대 제공 예정. 다만 고소득 전문직 대출자는 예외

5대 금융그룹 회장들, 빅테크-은행 '규제 불균형' 해소 요구

연합뉴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에 디지털화와 플랫폼 경쟁 격화 예상...다만 빅테크와 은행권 사이에 공정한 경쟁을 위해 '규제 불균형' 해소 촉구
각사의 배당 정책과 관련해 당국이 강조하는 자본 적정성 유지 이에도 시장 기대, 주주환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혀

우리은행, 라임펀드 돌려막기 시도...他 금융사 유인전략 논의

조선비즈

매달 1,000억원 규모로 돌아오는 플루토펙드의 만기 자금을 메꾸기 위해 다른 금융사 펀드 판매 유도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확인
그간 우리은행이 유지해왔던 '단순 판매사에 불과하다'는 입장과 배치되는 보고서 내용

'배당 자제' 논란 반복될라...금감원 가이드라인 만든다

데일리안

코로나19 여파 장기화 전망에 비상시 자율준수 방식으로 할 듯
과도한 시장개입 '관치논란' 불가피... '금융사 가치 하락' 우려도

나재철 금투협회장 "증권거래세 폐지 등 세제 개선 지원"

머니투데이

나재철 금투협회장은 3일 증권거래세 폐지, 장기투자 세제 혜택 등 자본시장 과세 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또한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성장 단계별 자금공급 지원, IB 업무 역량 가오하,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사채 시장 개설, ESG 상품 출시 지원 등 추진하겠다고 강조

증권사 불법 공매도 조사 마무리, 벌금 수천만원에 그칠 듯

조선비즈

금융위, 거래소의 감리 결과 증권사들은 시장조성자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드러나...
거래소는 감리가 마무리 되면 1월 중 금융위에 불법 공매도를 한 증권사를 보고할 계획. 법인당 과태료 양형 기준은 6000만원이며 고의성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KB증권 '라임펀드 투자자' 최대 80% 돌려 받는다

한국경제

금융감독원은 지난 30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KB증권을 통해 '라임시스타 1.5Y'펀드에 가입한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비율 40~80%로 책정
분쟁조정위는 KB증권 사례를 심의하며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 30%, TRS 등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30% 등...

실손보험료 최대 50% 올렸던 한화, 흥국, MC, 올해 10%대로

헤럴드경제

경영악화 겪고 있는 한화손해보험과 흥국화개, MG손해보험 올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률을 업계 평균인 10% 초반대로 결정
금융당국은 09년부터 17년까지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에 대해선 요구한 인상률의 60%, 구실손은 80%를 반영하는 실손보험료율 인상 가이드 라인 전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